





▲ 김문식 화백(오른쪽과 필자)

든 가슴을 후련하게 해준다.

경의선 열차는 소요시간이 짧아 홍익회 운영이 안되므로 간단한 음료는 휴대해야 한다.

퇴직교수인 한모씨(78)는 광복전 고향인 개성에서 경의선을 이용해 연희전문에 다녔다고.

“반세기 동안 경의선 열차 주변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조용한 시골이었죠. 그러나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신촌역입니다. 시멘트로 허술하게 지은 건물이지만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열차에서 한 독서가 훗날 학자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서 지금도 가끔 경의선을 탑니다.”

경의선을 이용해 갈 때는 신촌역에서 타도 올 때는 신촌에서 내리지 말고 서울역에서 하차할 것을 권한다. 가좌에서 서울역으로 올 때 터널 4개를 통과하는 맛이 괜찮기 때문이다. ▲▲

◀ 김문식 화백의 경의선 스케치

김문식 화백의 서체로 '경의선'이라고 쓰여진 글씨.